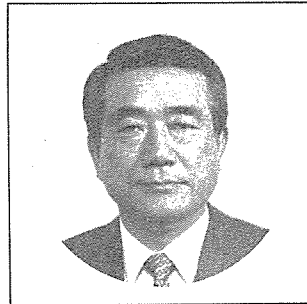


生産技術연구원

“中小企業 기술경쟁력제고 注力”



朴 宇 熙 院長

生産技術研究院은 1989년10월12일 개원한 이래 조직과 인사를 대체로 마무리 하였으며, 1990년부터 원래의 목적인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험평가 등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임금상승, 투자의욕 상실, 개방압력 등 국내여건이 생산과 수출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극복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생산기술의 혁신, 개량, 응용, 확산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중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며 활로라 하겠다.

生産技術研究院은 올해 첫 사업으로 연구개발본부의 고급인력을 동원, 熱流體機械分野에서 NMR냉각장치개발, 생산자동화 및 계측분야에서 壓電効果를 이용한 초음파 측정기술개발, 材料技術分野에서 液狀擴散 접합가공기술의 개발, 機械要素분야에서 마그네틱 베어링의 개발 등 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필요로하는 기존 기술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며, 尖端技術분야에서는 HDTV의 디지털 TV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밀가공, 逆性加工, 설계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연하는 공업기반기술과 특정과제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생산기술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은 물론 중견 기술인력을 첨단기술로 연계, 앞으로 첨단기술이 중소기업육성에 발판이 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HDTV의 연구개발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 기관이 되어 금년중 1천억원을 투입, 특히 HDTV 생산의 80% 정도를 점하는 부품과 소재생산을 중소기업이 담당토록 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슈퍼컴퓨터개발에 5백억원, VLSI설계를 위한 CAD TOOL 연구개발을 위해 총 5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슈퍼컴퓨터의 부품과 소재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참여, 첨단기술 중소기업의 효시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형연구개발은 그 자체로서는 생산 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협력하여 연구할 계획이나 여기에 대단히 많은 중

소기업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직접 첨단기술이 이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工業技術수요 조사

금년중 또 하나의 큰 사업은 공업기술수요를 조사, 장단기 기술정책수립과 집행의 바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1단계로 냉동공기조화 및 주조기술분야, 제2단계로 초정밀가공 및 자동화 기술분야를 연구할 것이며, 차후 점차 확대, 전 산업의 기술수요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분야별 공통애로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수준 분석, 경제성 검토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공업기반기술 즉, 산업계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통애로기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 294억원을 투입, 관리운영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중장기 기술인력 수급계획의 수립, 기술정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工業發展기금 운영

그리고 약 600억원 규모의 공업발전기금을 직접 운영,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합리화をも도모할 계획이다.

1990년 7월중 국내외 생산전문가 1백여명을 초청, "국제생산기술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생산기술발전을 위해 범 국가적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약 1백명 정도로 구성되는 "생산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주관해 왔던 정밀도경진대회를 "생산기술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생산기술의 중요성을 온 국민에게 인식시킬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 K 마크인증제도 개시

품질평가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K마크 인증제

도를 개시하며, 국제전기제품 인증제도(IECEE / CB SCHEME)에의 정회원 가입, 西獨 GS마크 시험대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소는 1990년도가 사업추진의 첫 해인 만큼 20만평 정도의 부지확보와 1994년부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위한 건물, 장비, 시설 그리고 인력양성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 집중추진할 계획이다.

### 契約制度 도입

연구개발을 위해 총 3백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박사급 인력을 뽑을 계획이며, 이러한 큰 사업들을 차질없이 또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술관리요원과 국제수준의 시험검정기관 및 중견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가장 우수한 인력을 국내외에서 선발, 유치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러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독자시 生産技術研究院은 달리 계약제를 도입, 적자시에는 감원, 흑자시에는 정년없이 계속 능률적 수당을 더 많이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本部 및 센터별로 모든 직원이 책임을 지고 흑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評價와 人事考課를 철저히 단행토록 준비하고 있다.

### 收益性위주 프로젝트 추진

생산기술연구소의 프로젝트는 수익성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공개발표케 하고 참여기업이 스스로 평가,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만 수행케 할 계획이다.

모든 직원은 生産技術研究院이 社會의 큰 기동이며, 연구원이 발전이 될 때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社會에 부담이 되지 않는 기구와 조직을 완비, 부가가치 창출의 유일한 원천인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